

미주복음방송 중국 가정교회 특별모금 생방송 은혜 속 마무리

전 세계 교회 깨우는 영적 연대
11월 21일 기준 74,510달러 모금

미주복음방송(GBC)이 11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진행한 '핍박받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특별모금생방송'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다. 이번 특별방송은 중국 당국에 체포·구금된 베이징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와 18명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와 중국 가정교회를 돋기 위해 기획됐다.

■ 중국 가정교회 탄압 현실 드러내 베이징 시온교회는 2007년 김명일 목사가 개척한 중국 대표 가정교회로 40개 도시, 100여 개의 개척 교회, 약 1만 명의 성도가 모여온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공동체다.

지난 10월, 중국 당국이 지도자 38명을 일제히 체포했고 이 중 18명은 현재 정식 기소되어 구금 중이다. 미주복음방송은 중국 선교 현장을 이번 특별방송을 통해 집

중 조명하며 전 세계 교회가 기도와 연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 안나 류 사모·그레이스 진 자매·동역자들

5일간 진행된 생방송에서는 김명일 목사의 아내 안나 류 사모(류춘려)가 매일 출연해 시온교회의 성장 과정, 복음 확장의 실제, 어려움과 중국 성도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전했다. 또한 미국 각 지역에서 김 목사와 동역했던 목회자·선교사들, 중국선교를 섬겨온 교회와 기관, 개인들이 연이어 참여해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중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다시 깨우시는 영적 부르심"이라고 고백했다.

방송 마지막 날에는 팔 그레이스 진 자매가 남가주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아버지와 시온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온교회 차세대 목회자 Sean Long 목사도 앞으로의 비



베이징 시온교회를 개척한 김명일 목사 및 핍박 받는 중국 교회를 위한 특별 생방송이 진행됐다. © GBC

전을 나눴다.

■ 중국 가정교회의 믿음

방송을 통해 많은 청취자들이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핍박을 접했다. 수년간의 규제와 폐쇄 압박에도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고, 이를 위한 고난을 감사로

하며 11월 21일 기준 총 74,510달러가 모금됐다. 모금은 11월 30일(토)까지 계속된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이번 사건은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일어나야 할 때임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며, 이번 특별방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로 핍박받는 교회를 향한 연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나 류 사모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 많은 영적 가족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남편이 석방 후 여러분 앞에서 감사의 간증을 드릴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핍박받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모금은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후원문의는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으로 연락해 동참할 수 있다. 이번 특별모금생방송은 미주복음방송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kgbc.com)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 할 수 있다.

조셉 리 기자

세인트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 개최

세인트미션대학교(총장 박상원 박사)가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에 뉴욕 헐러싱 소재 GLF센터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차요한(호준) 목사에게 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차요한 목사는 세인트 미션대학교 학점교류에 의해 박사과정이수 학점을 취득했고 박사학위 논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사도 요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 사건에 대한 역사적 연구(A Historical Study of Christian Events from the Birth of Jesus to the Death of the Apostle John)'이 심사과정으로 통과되어 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제1부 박사학위수여식은 케빈 최 목사(뉴욕 충청향우회 회장)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찬양사역자 김영환 전도사의 특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니'와 개회기도로 시작했다. 박상원 총장은 차요한 목사에게 신학박사학위를 수여했고 이어 한국어 유엔 공용어추진연합 뉴욕지부장 김순상 권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상원 총장은 "세인트 미션대학교 신학박사로 학위를 취득한 차요한 목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1911년 9월 3일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뉴욕 엘리스 아일랜드 뉴욕에 도착했을 때 한인들이 있었으



사진 왼쪽 박상원 총장 / 오른쪽 차요한 목사 © 세인트미션대학교

며 그 당시 우리 한민족도 나라가 없었고 유태인들도 나라 없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나라를 세운 유태인들은 미국에서 막강한 힘을 구축했으나 우리 미주한인들은 여려면에서 분발해야 할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미주한인의 이민역사가 4세대로 이어지는 현재 한인 차세대의 정체성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말하고 쓸 줄 알아야 함에도 너무나 많은 후손들이 우리 말과 글로 소통하지 못함을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한국어 유엔 공용어 채택을 뉴욕 본부에서 이뤄야 하기에 미주한인들이 앞장서 단결해야 한다"라고 환영사를 했다.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차요한 목사가 답사했고 최은종 목사, 송병기 목사, 이희선 목사가 짧은 축사로 참석자들에게 웃음과 은혜로 학위수여식을 기쁘게 했다. 제2부 감사예배는 케빈 최 목사 사회와 묵도로 시작했으며 주제연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다. 성경봉독은 이희선 목사가 '디모데 후서 3:12-17'를 한글과 영어로 봉독했다. 찬양사역자 김영환 전도사가 '주기도문(The Lord's Prayer)'을 특송했고 송병기 목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리'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은종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제3부는 만찬으로 송병기 목사가 식사 기도했다.

→ 1면 기사 <남가주 교협 김은목 목사 취임>에 이어서

이날 행사에서는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의 시간도 마련됐다. 신임 회장이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직전 회장이 신임 회장 및 55대 임원



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이어서 민종기 목사(증경회장)가 권면을, 고경환 목사(한기총회장)가 영상 축사를 전했으며, 이창남 목사(OCC교협회장)와 이득표 장로(장로협의회장)가 축사를 통해 남가주교협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CBS 선교중장단이 축가로 자리를 빛냈다.

이날 축사를 한 목회자들은 교협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온 모든 이들의 헌신을 언급하며 "55대가 마쳐지고 56대가 시작된 이 시점에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 칭찬도 꾸중도 받는 자리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따르는 직분임을 기억하고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수님이 리더십을 '종의 리

더십'으로 정의한 로버트 그린리프를 언급하며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왕이셨다"며 "교협 회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자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수 있지만,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며 듭는 동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산불 당시 헌신적으로 뛰어다녔던 샘신 목사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보여준 사랑과 섬김의 태도를 통해 교협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2026년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현행 목사(뉴욕교협 회장)는 축사에서 교협이 이민교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지켜온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이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는 공동체 위에 회복과 새 은혜가 부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동부와 서부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며 사명이 확장되는 시대적 흐름을 말하며, "지역을 넘어 한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 교협이 더 큰 역할을 감당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순서에서는 최영봉 목사(이사회 총무)의 인도로 차세대 목회자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어, 교계의 미래인 차세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최학량 목사(증경회장)의 폐회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2025 LA 동부교역자협의회 성탄찬양제

일시: 12월 7일 (주일) 오후 5시
동부 사랑의 교회(우영화 목사님 시무)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el. (909) 590-3722

참여 교회

- 1) 글로벌선교교회
- 2) 나성한미교회
- 3) 동부사랑의교회
- 4) 선한목자교회
- 5) 선한형지기교회
- 6) 아름다운교회
- (한조) 장로 선교 중장단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el. (909) 590-3722

성탄의 기쁨으로 동부지역 교회들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 LA 동부교역자협의회 회장: 최현규 목사 626-949-1624 부회장: 홍충수 목사 714-398-2472

3기 성경필사 장학생 출발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11월 22일(토) 오전 10시, 세계등대교회(김도일 목사)에서 기독일보 주최로 '3기 성경필사 장학생 출발 예배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차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신앙적 뿌리를 세우도록 돋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올해 3기를 맞아 참가자들과 가족, 교계 인사들이 모여 출발을 기념했다.

이번 예배는 강태광 목사(World Share USA 대표)의 인도로 시작되어, 지난 2기 성경필사 장학생들의 영상이 이어졌다.

말씀은 김창섭 목사(세계선교교회)가 전했다. 그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예레미야 31:33)를 중심으로 성경필사의 유익에 대해 나눴다. “성경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쓰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록된다. 나는 종이 위에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신다.”

또, 말씀은 필사하면서, “성경 말씀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 또 성경필사를 하다보면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BTS 솔라 대표 풀 킴 목사, CHE AHN 주지사 후보 후원회장 렌스 김 회장이 각각 장학생들에게 축복과 조언을 전했다.



세계등대교회에서 '3기 성경필사 장학생 출발예배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 기독일보

렌스 김 회장은 34살에 그리스 도께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루 아침에 바꾸셨다고 간증했다. “제 부모님들은 1세대 이민자셨다. 하루에 16시간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챙겨야 했다. 한번은 감옥에 24시간 동안 갇혀 있던 적이 있었다. 제 주변에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다시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

당신이 진짜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니 알려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 후 하나님께서 저를 체 안 목사님 교회로 이끄셨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한 후 매일 밤낮 무릎으로 기도 했다. 그리던 어느날 하나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 꾸게 하셨다.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나 자신의 전재산과 크레딧으로 컴퓨터 칩을 샀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그가 산 컴퓨터 칩의 그 가격이 5배로 솟았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하루 밤 사이에 완전히 바꾸셨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 보다 낫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예배에 하루를 온전히 드리고,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풀 킴 목사는 56세 때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 여기며, 생을 마감하기 위해 저수지로 걸어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들려왔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저는 오직 말씀만 불들었다. 하나님께 주일예배 때, 한 절을 주시든, 세 절을 주시든, 한 장을 주시든 그 말씀을 불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살았다.”

그는 코로나 때, 평생 불구로 활체 어 생활을 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신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말씀은 마음에 각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기 장학생의 간증

1기와 2기 장학생 대표 Timothy Han(USC 2학년)과 Hyemi Lee(NCA 11학년)가 성경필사를 통한 변화와 은혜를 나누었다. Timothy는 필사를 통해 신앙이 깊어질 수 있었다고 고백했고, Hyemi는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든 참석자가 장학생들을 위해 축복기도한 후 세계등대교회 담임 김도일 목사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번 3기 성경필사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총 34명이며, 6명은 선교사 자녀이다. 주디 한 기자

윤대혁 목사가 돌아본 ‘첫 담임 사역’

한국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이어, 제3대 담임으로 내정된 윤대혁 목사가 23일 사랑의빛선교교회의 주일예배에서 그의 지난 사역을 돌아봤다.

그는 2013년, 39살의 나이에 사랑의빛선교교회 제3대 담임으로 부임했다며, “39살 난 담임목사, 경험에 없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며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자 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윤 목사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여기

셔서 응답해 주셨다”며 “12년 사역을 넘기고 13년 차에 들어가면서 사랑의빛선교교회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의 많은 신뢰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도님들은 하나 되어서 헌신하며 우리 사랑의빛선교교회를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로 함께 만 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윤 목사는 “어떻게 해결하지”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때에 맞게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해결하셨음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된다”고 했다.

윤 목사는 “39살의 경험 없는 목

사, 또 젊은이 사역,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설교가 빨랐다”며 특히 나이가 많은 교인들이 그 점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6년이 흐른 어느날, 한 교인이 자신에게 “기도가 응답됐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천천히 하신다”고 했다고. 그래서 윤 목사가 “그럼 왜 말을 하지 않으셨나?”고 묻자 그 교인은 “어떻게 말해요, 목사님. 기다릴 뿐이죠”라고 답했다고 한다. 윤 목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 때문”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동부교협 성탄연합 찬양제

동부교협 교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연합 찬양제가 12월 7일(주일) 오후 5시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 사랑채플에서 개최된다.

글로벌 선교교회, 나성한미교회, 동부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정지기교회 아름다운교회, 주님Church가 참여하며, 장로 선교 중찬단이 찬조 출연한다. 문의: 626-949-1624, 714-398-2472

12월 7일(주일) 오후 5시

동부사랑의교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전문 코치의 길’ 여는 오리엔테이션

국제코칭연맹(ICF) 공인 전문교육 기관인 GIFT 전인코칭전문학교(원장 리디아 전 박사)가 오는 12월 3일(수) 저녁 7시 30분(미서부 시간), 온라인 Zoom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6년 봄학기 과정 개강을 앞두고 GIFT 학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문 코치 과정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과정 안내, 입학 절차, 장학 혜택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이다. 참가자들은 ICF 국제자격증 과정은 물론, GIFT만의 크리스천 전인 코치 양성과정(CWCTP)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025년 2월에 시작된 제1기 훈련과

정은 지난 6월 성공적으로 수료를 마쳤고, 9월에 시작된 제2기 훈련과정은 지금 진행중이며, 오는 2026년 2월, 제3기 과정 개강을 앞두고 있다.

주최측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조기 등록 시 등록비 면제, 장학금 신청 기회, 할인 코드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의 사역 방향을 결정짓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오리엔테이션 안내

일시: 12월 3일(수) 오후 7:30

신청: <https://giftcoachinginstitute.com/orientation2025-december>

문의: info@giftcoachinginstitute.com / 714-298-1115

Installation Service

장로, 권사 및 안수집사

임직예배

본 교회의 2025년 장로, 권사 및 안수집사 임직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축복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ANC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태형

일시 : 2025년 12월 7일(주일) 오후 3시
장소 : ANC 온누리교회 본당

시무장로(6) 양경민, 이동원, 임동국, 정윤웅, 조용진, 최운호
시무권사(12) 김영미, 김자은, 남은영, 신희, 양경원, 윤혜영, 윤희종, 이경선, 이미라, 이은영, 이은임, 최성희
명예장로(18) 강대진, 권오균, 권진수, 김용석, 김용우, 김주경, 김희재, 신종근, 심재덕, 엄대웅, 윤영택, 이계준, 이영해, 이아창, 임성배, 전영필, 조동진, 최성숙
명예권사(10) 김복님, 김영자, 문재화, 박승순, 박정의, 유재숙, 이금례, 정영진, 최인순, 황경애
집사안수(36) [남] Steve Yi, 강영학, 김민태, 김주형, 박종성, 성경현, 손종근, 이강규, 이민형, 이호석, 정남, 조경곤, 조석현, 홍명호
[여] 강영주, 김미영, 김수진, 김수희, 김신설, 김영인, 김윤정, 나미라, 류승희, 박영숙, 송금지, 유영주, 윤다영, 이경옥, 이소연, 이자은, 이현미, 정미경, 조선영, 조성희, 흥에스더, 홍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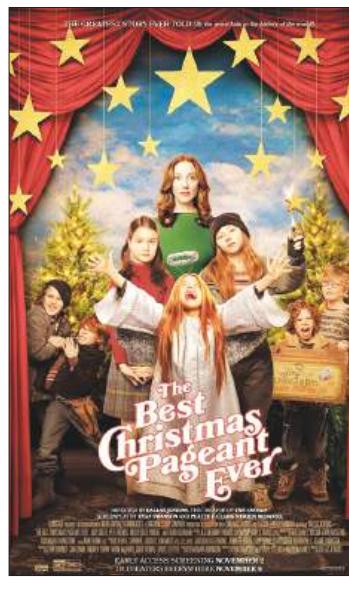
ANC
ANC 온누리교회

ANC 온누리교회는
올해로 창립 29주년을 맞이한
CRC 교단 소속교회이며 LA 선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NC 온누리교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 www.anconnuri.com | (818) 834-7000



“사람은 꿈을 만나면 자유의 날개를 갖는다”

I AM Church 정종원 목사
TV기독일보 ‘늘 새롭게’ 간증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지을 생각했을까? ‘명사’나 ‘형용사’를 교회 이름으로 취하는 일반적 형태 대신, 이 교회는 ‘주어와 서술어’를 교회 이름으로 삼았다. 이 파격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지난 10월 26일 아이엠처치(I AM Church, 담임 정종원 목사, 4120 W Pico Blvd)는 창립 16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에서는 LA 한 인타운에서 아이엠처치를 이끌어온 정종원 목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일상의 언어로 스며들다

90년대 후반, 한국 CCM은 뜨거운 외침이 주를 이루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정종원 목사와 한웅재 목사가 결성한 ‘꿈이 있는 자유’는 달랐다. 그들은 ‘복음’을 일상의 언어로 담아냈다. ‘아침’, ‘바람’, ‘나무’, ‘소원’ 같은 단어들이 가사를 채웠다.

평택 시골교회에 복음과 비전을 들고 찾아온 청년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중학교 때이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친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고, 친구가 저를 교회에 전도했다.”

집 바로 앞 5m에 미군 철책망이 있던, 기지촌 마을, 대학 진학은 1년에 한두 명이 뉴스거리가 되던 곳에 카투사 군인 20여 명이 찾아왔다. CCC와 내비게이터 등 캠퍼스 선교단체이 그들의 발걸음을 시골교회로 향하던 때였다.

“중학교를 올라간지 얼마 안되었을 때, 카투사 20여 명이 시골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게 됐다.”

그는, 그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출구를 발견했다.

“청소년 쯤 되면, 많은 경우 꿈이 꺾였다. 기지촌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거나, 부대 안에 들어가 어떤 일에 종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학을 1~2명 정도 가면 그게 큰 뉴스가 됐다. 그만큼 소망을 찾기 힘든 어려운 동네였는데, 저희



정종원 목사는 꿈에서도 악상이 떠오르면, 자다 일어나 적었다고 했다. © TV 기독일보

교회에서 50명 이상의 목회자·선교사가 나왔다. ‘꿈이 있는 자유’라는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사람은 꿈을 만나면, 자유의 날개를 갖는다는 산체험이 있기 때문이다.

창작의 원천은 하나님

음악 사역으로의 여정은, 중학교 2학년, 선배 집에서 들은 ABBA 음악이 계기가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음악을 듣는 선배 얼굴에 번진 훤힌 표정이었다.

ABBA의 음악을 듣는 선배의 얼굴에는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환한 표정이 번졌다. 정종원 목사는, ‘교회도 만들어 내지 못한 표정을 음악이 만들어 낸다는 것에 놀랐다. 여기에 대해 불만이 끊어 올랐다. 당시 교회에 부를 음악이 많지 않았다. “하나님, 은혜를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왜 교회엔 이런 노래가 없을까?”

그날 밤, 그 기억은 그를 기도로 이끌었다. “하나님, 교회에 노래를 일으켜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셨고, 그후로 가는 곳마다 작곡에 대해 힌트를 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첫 작곡은 〈나의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찬송 제목이 되고, 전할 소식이 된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내가 감출 수 없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라는 그 자신의 소박한 고백이 곡이 됐다.

꿈에서 누군가 노래를 불러주면 그날 밤, 그 기억은 그를 기도로 이끌었다. “하나님, 교회에 노래를 일으켜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셨고, 그후로 가는 곳마다 작곡에 대해 힌트를 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첫 작곡은 〈나의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찬송 제목이 되고, 전할 소식이 된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내가 감출 수 없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라는 그 자신의 소박한 고백이 곡이 됐다.

그는, 그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출구를 발견했다.

“청소년 쯤 되면, 많은 경우 꿈이 꺾였다. 기지촌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거나, 부대 안에 들어가 어떤 일에 종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학을 1~2명 정도 가면 그게 큰 뉴스가 됐다. 그만큼 소망을 찾기 힘든 어려운 동네였는데, 저희

자다 일어나 적었다는 그는, 지금 까지 100여곡의 곡을 작곡했다.

I AM Church, 진전성 고민

아이엠처치를 시작할 때, 그가 고민했던 것은 ‘교회의 진정성’이었다. “세상이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구나. 교회는 이 진정성에 대해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저는 미국의 큰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하다가, 저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방향하는 모습을 보며 괴로웠다. 그때 그렇게 괴로워 하던 성도들이 식당에 가면 너무 행복해 하더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네, 그리고 행복해 하네, 그래서 식당을 생 각했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저는 진짜, 교회 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고 싸인을 주셨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시작하는 교회들을 봤을 때다 고전하고 갈등하고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워진다.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전 집에만 있겠습니다. 그럼 열 가정을 보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열 가정이 왔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고민 끝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아이엠처치라는 이름이 나왔다.

뇌경색... 끊어진 신경을 대체할 새

로운 신경 회로

5년 전 성탄절 이틀 전, 팬데믹 초창기. 갑자기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병원은 2주 뒤에나 진료 가능했고, 골든타임을 훌쩍 넘겼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른쪽 신경이 모두 막혀 그저 살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사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뇌경색 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뇌는 내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끊어진 신경 대신 다른 신경 경로를 새로 만들어 냅니다. 마비된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문제는 마비된 쪽은 원래 정보를 줄 수가 없으니, 건강한 왼쪽을 ‘원본’으로 삼아서 똑같이 따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왼쪽이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도 함께 따라 하려고 애쓰면, 그 신호가 조금씩 오른쪽으로 입력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뇌와 가장 가까운 어깨나 팔꿈치 쪽부터 서서히 회복이 시작되고, 점점 아래로 내려오죠. 그 당시만 해도 제 발목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 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교회의 몸 된 지체의 원리를 깨달았다.

“마비된 지체가 회복되려면 건강한 지체가 계속 움직여 정보를 줘야 한다. 잠든 영혼을 깨우려면 제대로 된 모델, 즉 살아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예배자의 군대를 세우는 교회로

I AM Church는 16년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 중이다. “제가 중학교 때 받았던 은혜가 사역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함께 사역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막새 노래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시는 느낌입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말씀으로 무장한 군대로 서는 것, 그 일을 준비하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윤준 기자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Happy Thanksgiving

Jesus Saves

Father's Table

아버지 밤상교회

주님의 숲 기도원

아름다운 교회 | Conifer Camp



Conifer Camp 시설안내

1본당/ 캐빈/ 무역/ 소예배실 / Guest House

시설 및 사용안내

예약문의 : conifercamp@gmail.com

Direction 찾는 길

From Orange County or The South Bay Area:

Take the 91 East (or the 55 North to the 91 East)

To the 215 North

To Interstate 10 East

To Interstate 210 North

To Hwy. 330 East

From The Los Angeles Area :

Take Interstate 10 East To Interstate 210 North To Hwy. 330 East

32900 Conifer Camp Road, Running Springs, CA 92382



100세 건강

시대로 —————

정만길

정만길 내과 주치의는 이제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합니다

고용량 비타민 C 요법부터
암 조기 진단까지 정병원에서 관리하세요

정병원 종합검진센터
JUNG MEDICAL CENTER

323.766.1057

| 3511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19

월,화,목,금 오전 7시 ~ 오후 3시
수요일 오전 7시 ~ 오후 12시

정만길 내과 주치의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위해 당당히 맞섭니다

센터메디컬그룹

“한국교회, 국가적 위기 앞에서 회개하고 깨어나야”

‘리바이벌 코리아 강남광장기도회’ 열려

그안에진리교회(담임 이태희 목사)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 강남스퀘어에서 ‘리바이벌 코리아(REVIVAL KOREA) 강남광장기도회’를 개최했다.

성도들은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1부 예배에서는 그안에진리교회 담임이자 리바이벌 코리아 기도회의 대표인 이태희 목사가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사무엘하 22:1~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오늘 이 강남 한복판에서 모인 이유는 분명하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인 위기나 경제·사회적인 위기가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체제적인 위기”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은 붕괴되고, 법치주의는 왜곡되고,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는 시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는 반드시 깨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

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세상이 부패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기 이전에, 교회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일차적인 책임은 교회에게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진리의 빛을 비추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악과 불의 앞에서 침묵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세상에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세상에 무지했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세상의 빛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비추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주를 움직이신다”며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도 입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먼저 국대떡 볶이 김상현 대표가 ‘한국교회를



‘리바이벌 코리아(REVIVAL KOREA) 강남광장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향한 호소’라는 주제로 연설했고, 이어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가 ‘

대한민국의 소명’, 이춘근 박사(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는 ‘트럼프 시대 세계 정치와 한반도 통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한편, 그안에진리교회는 이번 기도회를 앞두고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에스더 금식기도회’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각자의 삶을 돌아키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부흥의 불씨가 강남

광장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또한 교회 측은 “이번 강남광장

기도회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으로서 그안에진리교회가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이어온 ‘리바이벌 여의도 광장기도회 & 국민광장학교’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목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100m 직진)에서 열리는 광장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분별력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을 꾸준히 이끌고 있다. 이번 강남광장기도회는 그 동일한 부흥의 흐름을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한다.

이태희 목사는 “우리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오직 복음과 회개로 이 나라의 부흥을 구한다”며 “이번 강남광장기도회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다운로드 10억 건 넘어선 유버전 “글로벌 허브 확장”



유버전. ©유버전

행사가 지난 11월 17일 오클라호마시티 페이컴센터에서 ‘10억을 넘어서’(Beyond Billion)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는 로렌 데이글(Lauren Daigle), 크리스 톰

린(Chris Tomlin), 씨씨 와이너스(Cece Winans), 필 위크(Phil Wickham) 등 유명 CCM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랐다.

유버전은 단순 성경 유통을 넘어

번역 프로젝트 자금 지원으로 사역을 확장했다. 전 세계 성경공회와 협력해 수십년 걸릴 번역 작업을 가속화했으며,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앱을 통한 기부로 번역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현재 2천 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제공하며, 라틴아메리카·캐나·남아공·서아프리

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다. 이를 위해 유버전은 6개국에 ‘글로벌 허브’를 설립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허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룬왈드는 “유버전은 내부적

으로 제한적으로 AI를 사용한다”

며 “교회들이 위험을 이해하는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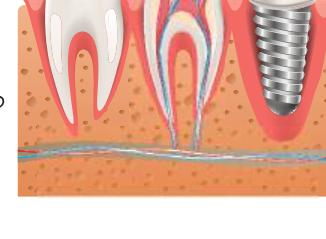
도보다 더 빨리 AI를 수용하고 있는데, 그 한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가 성경구절을 잘못 인용할 확률이 15~5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딥페이크와 비결정론적 답변으로 인해 영적 콘텐츠의 신뢰성이 흔들릴 위험을 경고했다.

유버전은 더 많은 국제 허브 설립, 지역별 맞춤화 강화를 통한 글로벌 확장을 계획 중이며, 성경 읽기·노트·하이라이트 기능 무료 제공 및 사용자 계정과 동기화 등 교회·비영리 단체가 유버전 인프라를 활용해 자체 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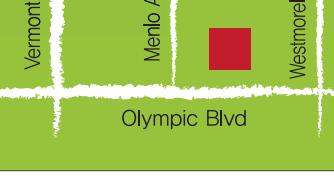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늘 [] 이
먼저였습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늘 꿈이 먼저였습니다.

늘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당신.

이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SMG

서울메디칼그룹

최덕성 박사 “선지자 감옥 가두는 나라, 복 받을 수 없어”

최덕성 박사(브니엘신학교 총장)가 11월 23일 오전 담임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설교했다.

손현보 목사 구속 후 ‘정치적 설교’가 개혁교회에서 허용됨을 살펴 온 최덕성 박사는 이날 ‘교회-국가-설교자(사도행전 4:19-21)’를 제목으로 설교하며 “여러분의 담임목사님은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손 목사님은 부산 고신대를 졸업했는데, 이 학교 설립자들도 일제 시대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5-6년 간 옥살이를 했던 분들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후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을 비판하는 설교로 독재 몰락에 기여했던 퇴케시 라슬로 목사(Tökés László, 1952-)를 소개하면서 “퇴케시 목사는 차우세스쿠 몰락에 ‘트리거’ 역할을 했다. 그 역시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국가가 정부 비판 설교를 금지했지만 이분은 열심히 그 설교를 했고, 그것이 알려져 전국에서 소요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차우세스쿠는 비밀경찰을 파견해 체포를 명령했지만, 교인들이 둘러싸고 막았다. 이후에는 군인들까지 보냈지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자 국방부 장관이 막지 말라고 명령했다”며 “퇴케시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한 것이 왜 잘못인가? 평화와 인권과 하나님의 뜻을 선언한 것이 잘못인가? 나를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법과 정권이 잘못됐다’고 외쳤다. 차우세스쿠 정권 몰락 이후 그는 ‘루즈벨트 예배의 자유 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최덕성 박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하고, 애국애족 정신을 가져야 한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과 국가의 명령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신대를 세운 출옥 성도들이나 루마니아의 퇴케시 목사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는 원리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 성경에 이런 예는 굉장히 많다.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할 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따르면 하나님께



최덕성 박사가 설교하고 있다.

서 축복하신 역사들이 많았다”며 “아기 모세를 숨겼던 어머니 요계벳과 누이 미리암, 국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와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도 그려섰다”고 말했다.

그는 “손현보 목사님이 ‘XXX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으로 설교했다”며 “조금 순화해서 표현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국가가 아래라저래라 간섭한다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최덕성 박사는 “지금 손현보 목사님이 오래 간혀 계신데, 그 이유로 지목된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봤다”며 “그 영상에서 손 목사님은 교육 바우처와 차별금지법, 양성평등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대화했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말을 문제 삼아서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잘못 됐는가”라고 개탄했다.

최 박사는 “사회적 명사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성경적 가치관과 신앙 교육에 필요한 대답을 나누는 것은 예배의 일환이다. 그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고 기독교 진리를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것이 선거법 차원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설령 다소 저촉된다 해서 헌법상 예배와 종교의 자유, 기본권, 신앙과 언론, 양심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면 하위법인 선거법과 상위법인 헌법 중 무엇을 따라 판결해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커다란 선물을 주셨다. 권리와 자유다. 권리는 인권·주권으로

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권리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명백하게 기술돼 있다”며 “누군가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데, 사실은 정교분리가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state)’이다. 1,500년간 내려온 원칙을 한국어로 바꾸면서 ‘정치’로 잘못 번역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잘못 써놓으니, 정치적 이슈를 설교에서 언급하기만 해도 시비 대상이 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국가와 종교의 분리로라도 바꿔야 한다. 어쨌든 헌법이 상위법이고, 선거법은 하위법”이라고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예배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도 국민들의 권리가 아닌 국가가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형태로 작동하는 곳은 사실 공산주의 국가다. 이들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하지만, 통제 하에서 극히 제한된 자유만 허락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교회는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덕성 박사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개혁교회 목사라면, 성경에 근거해 성경이 말하는 것에 한해 정치적 주제로 설교할 수 있다. 설교자에게는 성경 모든

가르침을 설교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도 국가도 사회도 정치도 문화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해야 한다”며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성경 본문과 관련 없는 정치신학적 설교를 한다. 그들 설교는 거의 전부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정치신학적 주제다. 해방신학·민중신학에선 주 메뉴처럼 계속 정치 설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과거 수도원처럼 사막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할 자들”이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역할을 하려면, 부패한 음식물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며느리, 여자 사위’를 보는 시대가 됐는데,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를 좌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에 위배된다고 말한다. 목사는 일부다처제 반대, 결혼과 가족, 자녀 출산과 양육, 훈육과 체벌 등에 대해 설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교회에선 정치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정치 이야기인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공산주의화되면 하나님 주신 자유와 권리 행사를 수 없어지는데, 그래도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라며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가? 기독교인들은 위정자나 정치 권력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면 저항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무엇을 할 때 저항해야 하는가? 첫째로 국가 정책이나 위정자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할 때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등에 반대해야 한다. 둘째로 국민 생활과 안녕, 복지를 심대하게 위협할 때, 셋째로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칠 때”라며 “넷째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할 때. 다섯째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고 법이 특정인에게 관대할 때, 여섯째로 국가를 존망으로 몰고 갈 때”라고 언급했다.

그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국법을 존중하고, 국가에 예의를 갖춰야 한다. 교통 경찰이 단속하면 순순히 응해야 한다. 애국자가 돼야 하고, 법치주의 국가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상충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며 “선지자가 없는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워,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신다. 성경은 행복 현장이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단 부정확한 정보나 확증편향적 내용을 근거로 정치적 설교를 해선 안 된다”고 정리했다.

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성경이 제시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설교해야 한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다 지금 옥중에 계신다”며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나라는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계로교회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진리들을 이 땅에 왕성하게 하고 모든 목사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원리 앞에 부복하시고 충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HYUNDAI
1-888-644-7114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풍성한 혜택
가을 스페셜**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한인 메카닉 서비스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영·웨일스 가톨릭 주교회의, 수단 내전 심각성 경고... 국제사회 개입 촉구

영국·웨일스 가톨릭 주교회의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단 내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수단은 독립 후 약 70년의 역사 중 40년 이상이 내전과 함께 했다. 현재의 내전은 2023년 발발했으며, 사실상 두 군벌 세력인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과 정규군 '수단군(SAF)' 간의 권력 다툼이다. 양측 모두 민간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말, 다르푸르 지역의 주요 도시 엘파세르(El-Fasher)가 18개월 봄 쇄 끝에 RSF에 점령되면서 사태는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RSF가 점령 직후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제사회의 총격을 불러 일으켰다.

랭커스터 교구장으로 아프리카 담당 주교인 폴 스워브릭(Paul Swarbrick) 주교는 "엘파세르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며, 즉각적인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는 다른 분쟁에 가려 '뒷전'으로 취급되지만, 희생 규모와 고통, 난민 수는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스워브릭 주교는 올해 초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수단 내전의 여파가 이웃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 불안정 심화를 우려했다.

그는 또한 CAFOD, 트로케어(Trocaire) 등 가톨릭 구호단체들이 위험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현장의 희생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외교적 개입 및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말뿐인 우려가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고 그는 강조했다.

스워브릭 주교는 성명 마지막에서 신앙적 희망을 강조하면서 "주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는 믿는다. 전쟁의 끝을 위해, 치유의 시간을 위해 계속 기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인도 기독교 가정, 고향 마을에서 가족 장례 치르지 못해



© pixabay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인도 차티스가르 주에서 두 기독교 가정이 고향 마을에서 친척을 매장하려던 권리가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23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두 사건 모두 현지 주민들이 매장지 출입을 막고 힌두식 장례를 조건으로 요구해, 가족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장례를 치러야 했다.

CP는 첫 사건은 캉커(Kanker) 지구 코데커스(Kodekurse) 지역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지난 5일 장기간 질병 끝에 사망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가족은 고향 마을의 조상 대대로 사용해 온 토지에 매장하려 했으나, 주민들은 가족의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이를 막았다. 이 사실은 영국 기반 기독교 인권단체인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가 보도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주민들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아 가족은 매장을 진행할 수 없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기독교 공동체는 시위의 일환으로 시신을 지역 경찰서 앞에 놓았다.

지난 6일에는 인근 마을에서 다른 기독교인들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지만, 당국은 여전히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장소를 찾아 매장을 진행하라는 권고만 있었다. 가족은 현지 힌두 민족주의 단체로부터 길에서 폭력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경찰 호위를 요청했고, 시신을 카라마(Charama)로 옮겼다. 하루가 지난 7일에는 장례 행렬은 약 1km 동안 공격적인 군중의 뒤를 따랐지만 이후 해산되었다. 시신은 이후 라이푸르(Raipur) 주도까지 약 200km를 우회하여 이동한 뒤 기독교 묘지에 매장됐다.

CP는 두 번째 사건은 며칠 후 제와탈라(Jewatrala) 마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라이푸르에서 병원에 입원했던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라만 사후(Raman Sahu)가 사망하자, 가족은 그의 고향 마을에서 매장을 시도했다. 그러나 마을 주

민들은 전통 힌두식 장례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입구에서 가족의 접근을 막았다. 주민들은 매장이 허락되려면 지역 종교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마을로 출동했고, 지역 행정당국은 중재를 시도 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사후의 시신은 영안실에 보관됐으며 가족은 다음 주제와 탈라에서 떨어진 삼크라(Sankra) 매장지에서 매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발로드(Balod) 지구 경찰서장 요제시 파텔(Yogesh Patel)은 주민들이 종교적 전환을 이유로 가족에게 매장지를 거부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은 고인의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주민들이 행동했다고 확인했다. 가족들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매장용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려 했으나, 공동체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차티스가르 기독교 포럼은 당국이 현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포럼 회장 아룬 파나랄(Arun Pannalal)은 "기독교인들이 고향에서 존엄한 매장을 거부당하는 동안 지역 당국은 방관했다"며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매장용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CP는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특히 부족 및 농촌 지역에서 종교 개종 혐의를 근거로 적대적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힌두 민족주의 단체는 외래 신앙을 전파한다고 비난하며, 사회적 배제, 물리적 위협, 기본 권리 거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오픈도어 감시 리스트에 따르면, 인도는 기독교인 박해가 세계에서 11번째로 심각한 국가로 분류됐다. 오픈도어는 최소 12개 주에서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를 위협하는 반개종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월~금 오후 7:30
평신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토 오후 3:00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8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오후 6:00
대학성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 백송교회

백송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꾸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장을 치료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Elder 코너 T. (213)386-2233

LA 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9: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224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 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새벽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집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encecgcc.org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GRC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1부 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9:30 장마다이예배 오전 11:30
3부 예배 오전 11:30 영어성난부 오전 9:30, 11:30
한국대학원대학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이종용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화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8: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u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구경모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최원일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예수의 은혜로 세상을 향유하는 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영 의회, '거리 설교자 현장' 공개, 경찰 과잉대응 논란 속 자유 보장 취지

영국에서 거리 설교자들이 겪은 벌금 및 부당 체포 사례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리 설교자 현장(Street Preacher's Charter)'이 의회에서 공식 발표됐다.

영국 크리스천트레이디(CT)에 따르면, 이번 현장은 경찰의 과도한 제재로 보상금까지 지급된 사건들이 잇따라 마련된 조치로, 기독교 단체인 '기독교 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가 작성했다.

현장은 거리 설교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설교자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거리 설교가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단체 측은 이 현장이 거리 설교자뿐 아니라 경찰과 지방 당국에 의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독교연구소는 현장을 두고 "영국과 웨일스에서 공공 장소에서 설교하거나 신앙을 나누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문서"라며 "오랜 전통을 가진 표현의 자유 보호 기준을 지키기 위한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설교자들이 실천해야 할 모범 지침과 관련 법률 내용이 담겼다. 주요 권고사항에는 지역 교회와의 협력, 현지 규정 확인, 지방 당국 및 상인들과의 우호적 관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젠더, 성적 지향, 성윤리 등 논쟁적 주제를 다룰 경우 "적절한 맥락에서 신중하게 다루라"고 강조했다.

현장은 "다른 종교를 공격하기보다는 예수의 배타적 진리를 전하라", "할 수 있는 자유가 항상 해야 하는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설교음량 조절, 분노에 찬 말투나 대립적 태도 지양, 특정 개인을 지목해 설교하지 말 것 등도 명시했다.

현장에는 "친절하고 협조적으로 행동

하라.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번 현장은 '오픈 에어 캠페인스 GB'와 '오픈 에어 미션' 등 영국 거리 설교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현장 서문은 전 영국 왕립검찰청장(DPP) 로드 맥도널드(Lord Macdonald of River Glaven KC)가 작성했다. 그는 자유 표현은 "기독교 거리 설교자들에 대한 법적 탄압 속에서 어렵게 행해졌다"며, "책임 있는 거리 설교는 공공 영역의 다양성을 높이고, 표현과 신앙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임을 상기시켜 준다"고 밝혔다.

현장의 주 작성자인 기독교연구소 법률 책임자 샘 웹스터(Sam Webster) 변호사는 "거리 설교자들이 누려온 자유와 공공질서를 관리하는 당국의 어려움을 함께 인식하는 문서"라며 "시간이 지나 더 많은 거리 설교자, 경찰, 지방 당국이 이 현장을 채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은 2022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중심가에서 설교 중 체포된 거리 설교자 앤거스 카메론(Angus Cameron·52)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그는 단 한 건의 근거 없는 민원으로 '치안 방해' 혐의로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 공개 수색을 당했고, 한 시간 넘게 경찰차에 구금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의 이름에 '혐의 없는 증오범죄 사건(non-crime hate incident)' 기록을 남기겠다고 통보했다. 기독교연구소가 확보한 경찰 내부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 당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론은 단체의 지원으로 경찰을 상대로 인권침해 및 차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는 경찰 스코틀랜드로부터 5,500파운드의 배상금과 9,400파운드의 법률비용을 받아 모두 기독교연구소에 기부했다.

이미경 기자

미 결혼 감소... '결혼 욕구' 여전 동거·재혼 증가로 가족 형태 변화

미국에서 결혼 비율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지만,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동거, 재혼 증가로 가족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결혼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은 아니라고 바나 연구소(Barna)가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트레이디(CT)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바나가 다년 연구 프로젝트 '번영하는 가족 이니셔티브(Flourishing Families Initiative)'의 일환으로 발표한 보고서 '오늘날 가족의 현황(The State of Today's Family)'에 담겼다.

연구는 전국 여론조사를 토대로 미국 내 관계 및 가정의 다섯 가지 주요 변화와 이에 따른 교회·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성인의 46% 가 결혼한 상태로, 이는 미 인구조사국의 51%와 비슷한 수치다. 1950년에는 약 3분의 2가 결혼 상태였다. 결혼의 가장 큰 원인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0세 초반, 여성은 29세로 1950년보다 약 8년 늦어졌다. 연구진은 이로 인해 "성인기에서 비혼 기간이 잠시 지나가는 단계가 아닌, 긴 삶의 한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인의 약 18%가 이혼 경험이 있지만, 그중 55%가 재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이혼 상태인 사람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1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수치는 결혼이 사회적으로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결혼 증가'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교회는 이혼 이후뿐 아니라 재혼 과정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英 성공회 초등학교

‘케이팝데몬 헌터스’ 노래 자체 요청



뉴케이팝 데몬 헌터스 공식 예고편. ©YouTube/Netflix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 계열 초등학교가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노래를 학교에서 부르지 말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해 달라고 학부모들에게 요청한 뒤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불필요한 조치”라며 반발했으며, 학교는 결국 안내문을 일부 수정했다.

도싯주 풀(Poole)에 위치한 릴리풀 코E 초등학교(Lilliput Church of England Infant School)는 최근 학부모에게 보낸 공지에서 해당 애니의 ‘악마 관련 표현’이 학교의 기독교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텔레그라프(The Telegraph)가 보도했다.

대리 교장 로이드 앤링턴(Lloyd Allington)은 안내문에서 영화 속 악마주의적 설정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부에게 매우 불편함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어떤 콘텐츠를 즐길지는 부모의 자유지만, 학교는 기독교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로서 그 가치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는 K팝 걸그룹이 악마를 사냥한다는 설정으로, 경쟁 그룹인 ‘자사보이즈’(Saja Boys)가 유혹과 짐작을 노래하는 악마 아이들로 등장한다. 해당 영화는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시청자수로 등극했으며, 사운드트랙 또한 큰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 대표곡 ‘골든(Golden)’은 10주간 영

국 차트 1위를 기록했고, 영국 공군 군악대가 버킹엄궁 균위병 교대식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조치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되고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하며, 아이들이 방과후에도 해당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학교가 외부 압력 때문에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학교는 두 번째 안내문을 발송했다. 앨링턴 교장은 많은 부모들이 영화 속 ‘용기, 친절, 팀워크’ 등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정된 메시지에서 그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영화나 노래를 ‘즐기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신, 서로 다른 신앙적 배경을 지닌 친구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교육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또한 영화 노래를 부르거나 관련 상품을 착용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징계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는 4~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솔즈베리 교구가 관할하는 자율통제형 국교회 학교다.

이미경 기자

中, 가정교회 지도자 18명 체포… “미등록 교회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



©pixabay

중국 정부가 미등록 교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광시(廣西)성 베이하이시에 위치한 시온(Zion)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보망 불법 사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인원은 시온교회의 담임목사인 에즈라 진 링리(Ezra Jin Mingri) 목사를 포함해 총 18명이다.

국제 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CSW)는 이들이 기소 전 구금 상태로 무기한 억류될 수 있으며, 최대 3년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온교회는 중국 내 최대 비공식 교회 중 하나로, 최소 5,000명의 신자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는 2018년 베이징 당국의 CCTV 설치 요구를 거부해 예배당이 폐쇄된 바 있다.

CSW의 CEO 스콧 바워(Scott Bower)는 이번 체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목사와 지도자들이 단지 평화적으로 종교를 실천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됐

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중국 공산당은 이들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하고, 등록하지 않은 교회 및 종교 단체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기독교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Open Doors)도 최근 중국에서 미등록 교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9월에는 예배 중에 성도들이 체포된 사례를 포함해 약 70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자들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사기’, ‘불법 경영’, ‘불법 집회 조직’ 등이 포함되며, 현금 관리 담당자들까지 근거 없는 재정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오픈도어는 전했다.

오픈도어의 현지 협력자는 “최근 단속 이후 우리 교회는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80개 이상의 가정교회 그룹이 활동을 중단했고, 기존 14개 교회 중 몇 곳만 남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미지역주) 오후 8:30 2부예배 오후 11:00 세번예배(전 5:20화-금) 오후 6: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부 07:30AM -부 09:00AM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 예배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gmcg.org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 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부(EM) 오전 10:30 대학생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학교예배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주님 CHURCH

주일 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장수영 담임목사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청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학년)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church.com

강문수 담임목사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병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이기파회)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독(예배팀을세울)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중등부 오전 11:00 Youth(금모임금)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awn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 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찬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7: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iccc.office@gmail.com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주일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저녁 7:0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 예배 9:45
주일 예배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www.fglvchurch.com/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 예배 2부 오후 2:00
EM 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오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E. drjho@hotmail.co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11:30 AM
주일 예배 2부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 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 685-2212, woorioeunchurch.com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 예배 9:00
주일 예배 11:00
교육부 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금요일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kcc.org/lvcc/index.php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MOTIVE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코프(Beauty College) 최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조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모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서사라 목사 신앙 · 신학 문제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박요한 목사, 서기 배영재 목사)가 최근 서사라 목사(한국명 서상아)에 대해 신앙과 신학사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신학·목회적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

서사라 목사는 LA 코리아타운 내 주님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합동해외총회 이대위는 서 목사의 사역과 저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결과 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대위 측은 다만 성삼위 하나님께 조명받았다는 것 등 주관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서 목사가 그간 내놓은 저서들의 주요 논쟁을 살피고 고린도전서 12장 1~12절을 인용해 성령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특히 천국·지옥 체험 간증서에 관련된 신학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한국 신학자들이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들을 참고해 서 목사의 주장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서영관 박사는 서사라 목사의 주장 중 일부 측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종신대 서요한 교수는 서 목사의 간증이 신자들에게 회개와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며 “서 목사의 신학적 주장을 완전히 체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연구와 논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대위는 서 목사의 학력과 사역 이력을 확인하며 “정통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온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저서 중 일부는 주관적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있어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문제의 저서를 공개적으로 소각한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신학적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서사라 목사.



서사라 목사 저서에 대한 예장 합동해외총회 이단대책위원회 신학 · 목회적 평가 책자.

첫째, 삼위일체 관련 논란에 대해 서 목사는 ‘구분’이 아닌 ‘구별’이라는 전통 교의신학의 입장을 따른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를 피조물로 보는 견해와 거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여호와”라는 고백 역시 양태론적 이단 사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직통계시나 자신의 체험을 구원론의 근거로 삼지 않았으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다는 정통 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목사의 신앙고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이대위는 “나카아(325)·콘스탄티노풀(381)·에베소·칼케돈 등 고대 에큐메니컬 공의회의 신앙 전통을 서 목사가 정통성의 기준으로 인정한다”며 “이는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학적 표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기에·스코틀랜드·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을 ‘개혁교회의 보편적 신앙고백’으로 인정하는 만큼, 서 목사의 신학이 정통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이어 “이단성 평가는 해당 인물이 속한 교단의 신앙고백을 토대로 해야 하며, 이후 다른 교단이나 세계적 신조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영호 목사의 기준 주장도 인용했다. 이는 이단 규정 과정의 정당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과거 박기성 목사(예장 합

동 이대위 전문위원)가 ‘이단성이란 단어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던 발언을 소개하며, 서사라 목사에 대한 판단 역시 이 원칙에 따라 신중히 다뤄져야 했다고 덧붙였다.

종합적으로 이대위는 “서사라 목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통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천국·지옥 체험 역시 개인적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절대화하거나 신격화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히려 해당 간증은 많은 이들에게 회개와 신앙 간증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대위는 서 목사가 도덕적 문제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신격화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필요할 경우, 학술토론회나 심포지엄을 통해 신학적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합동해외총회 이대위원장 박요한 목사와 서기 배영재 목사, 위원 정복희 목사, 박준규 목사, 윤화순 목사, 최호영 교수, 흥윤의 교수 등 여러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참여했다.

송경호 기자

새생명비전교회 성경 특별 전시회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는 11월 30일(일)까지 성경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6일(주일)부터 드림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풀권 장로와 강준민 담임목사, 노

미경 드림센터 관장이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전시된 자료들은 종교개혁기부터 1900년까지 성경, 찬송가, 공동기도서 등으로, 시대를 관통하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

이다. 전시는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성경의 역사와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관인 드림센터 운영시간은 토요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1시, 주말 오전 8시 ~ 오후 2시이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딛이고 지금 상담해 보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진유철 칼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지난주일 1, 2, 3부 예배를 마치자마자 26분 감사위원회의 첫 모임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제 사무실에 갔다 올 틈도 없이 25기 부부제자훈련을 인도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지한 간증과 질문이 이어지면 예상된 시간을 초과할 때가 있는데, 지난 주일은 30분도 더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진 은퇴장로회 부부 송년예배와 모임은 마음 따뜻하고 위

주를 바라보면 은혜의 답이 나온다

로가 넘치는 시간이었지만 아쉬움을 남기고 교회로 돌아와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딜레이가 된 비행기를 타고 피곤함에 식사도 거르고 화요일 아침 예정 시간보다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급히 옷을 갈아입고 여의도로 달려갔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을 만나 여러 얘기들을 나누고, 북미총회 총무 백형두목사와 함께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국 방문을 비롯한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는 집회를 약속한 세린교회에서 보내 준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을 풀 시간도 없이 약속된 저녁식사 후 바로 교회로 가서 첫날 성회를 인도했는데, 수면부족의 강행군으로 눈이 풀려 강단에 설 때쯤 사람이 둘로 보인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무사히(?) 예배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는데도 시차의 힘이 저를 새벽 2시에 일어나게 했습니다. 새벽예배를 인도하고 군포에서 여의도의 식당으로 급히 이동하여 북

미의 상임위원회, 유럽총회장과 총무, 여의도의 부목사 제자교회 목사들과 함께 순복음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님의 생신 축하 식사를 잘 섭길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장소를 옮겨 북미총회 상임위원회를 하고,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행사처럼 (?) 만나야 하는 분들도 순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몰려오는 피곤함 때문에 점심은 먹는 둘 마는 둘 지나고 호텔에서 저녁식회를 준비하는데, 사랑의 배려로 큰방을 예약해주어서 기도하며 머물러 있기에 불편함이 없어 감사했습니다. 세린교회는 여성장로가 두 분 계신데, 각각 첫째 날과 둘째 날 저녁식사를 섭취주셔서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셋째 날 식사를 섭취주신 선임 장로님은 전자공학교수로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며 조용필장학재단 이사로 가수 조용필씨의 국내외 모든 공연과 '싱어게임'이란 프로를 비롯한 TV의 여러 방송 프로그램

을 주관하는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로님들은 세린교회를 26년, 27년씩 섬기고 계셨고, 지금은 4대가 함께 출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축복을 가정과 사업을 통해 넘치게 받고 계심을 간증하시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안성복 목사님이 취임하고 4년 차, 과거 아픔으로부터 회복을 이루며 평안을 되찾는 때에 부흥성회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부흥을 꿈꾸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갈까 말까의 결정부터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순간마다 더욱 철저히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며 기도하였더니 사람이 억지로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 중보기도 해주셔서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살롱!

강준민 칼럼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록 붙잡아줍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히 2:1). 떠내려간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지를 잃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닻은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닻은 아무 때나 내리지 않습니다. 항구에 정박할 때, 목적지 근처에서 입항 순서를 기다릴 때 닻을 내립니다. 조류가 너무 강해 접근이 위험할 때 닻을 내립니다. 항해를 떠나기 전에 작업할 때 닻을 내립니다. 고기를 잡을 때 닻을 내립니다. 긴급하게 멈추어야 할 때 닻을 내립니다. 폭풍 속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지역으로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 닻을 내립니다. 바람이 강하면 배는 떠밀립니다. 이때 닻을 내리면 배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밤이 깊어 시야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도 닻은 필수적입니다.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속도를 내면 암초나 바위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밤에 빠르게 항해하다 빙산과 충돌해 파선했습니다. 닻은 배의 생명줄이며,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우리는 폭풍과 같은 고난을 만납니다. 상실과 두려움의 밤을 통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닻'입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줄 영혼의 닻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닻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망의 하나님은 영혼의 닻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근원이시며,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 소망의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제가 품고 사는 명언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짓는 것이다." 절망과 낙심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둘째, 약속의 말씀이 영혼의 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꽂은 시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사 40:8).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인내하여 약속을 받았습니다(히 6:14-15).

바울이 유라글로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安心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행 27:23-25). 그는 약속의 말씀에 닻을 내렸습니다. 광풍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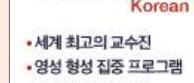
다. 폭풍이 클수록 말씀의 닻을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셋째, 기도가 영혼의 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잠자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자히 바라볼 때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자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 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시 62:5-6).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소망이 충만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예수님의 들어가신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 6:19에서 말하는 "휘장 안"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예수님이 들어가신 하늘 지성소에 닻을 내리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가장 깊은 닻입니다.

넷째, 공동체가 영혼의 닻입니다. 인생 여정에 찾아오는 거친 폭풍우를 혼자 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가족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소망을 품고,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3-24). 흔들리는 세상에서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카카오톡 채널: "탈북" 검색

유튜브: "탈북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훈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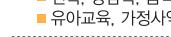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학사, 석사, 박사)

• SEVIS-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일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경영학, 비영리단체사업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종교학 학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대학(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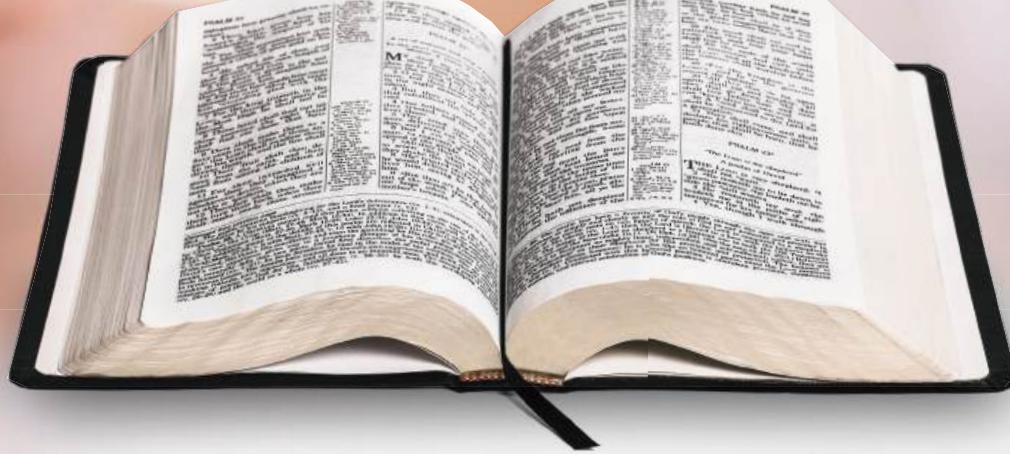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112/admin.koreaitsla.edu

제3기 성경필사 장학생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 서도록 돋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미주 기독일보는 올해도 신약성경 6권 필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며 그들의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총 34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어 말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장학생 한 명을 세우는 것은 한 인생을 세우는 일입니다.

★ 말씀을 불잡은 다음 세대는 교회를, 가정을, 이 땅의 미래를 일으킵니다.

이 귀한 34명의 장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이들에게 전달될 장학금 후원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는 한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써 내려가는 말씀 한 줄 한 줄이 장차 이들을 세우는 능력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불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장학금 1인당 \$1,000

문의 : 기독일보 213-434-1170

이메일 : chdailyreporter@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일보



주최 : 기독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다 감사드리세 (Now Thanks We All Our God)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해야 합니다. 기근과 질병, 전쟁으로 황폐해진 난민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돌보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초라한 집에서,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 위에 놓인 남은 음식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조촐한 식사를 나누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이 찬송가는 독일의 30년 전쟁(1618 - 1648) 시기였던 1636년에 독일의 마르틴 린카르트(Martin Rinkart, 1586- 1649)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수학한 뛰어난 음악가이자 루터란 교회 목사로 아이렌부르크 시의 부 교구장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이 30년 전쟁은 독일 내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의 종교적 갈등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영토를 둘러싼 정치적 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벽 도시로 피난을 왔고, 과밀한 환경은 기아와 질병을 초래했습니다. 한 차례의 전염병으로만 8,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 찬송가 학자 J.R. 워슨(John Richard Watson, 1934-)에 따르면, 린카르트는 이 때 아이렌부르크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살아

남은 목사 중 한 명으로서 개인 자원을 동원해 난민을 돌봐야 했으며, 병자들을 돌보고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르며 오랜 시간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1637년 한 해 동안 린카르트 목사는 4,480명을 매장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목사가 하루에 세 번 장례를 집례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그해 그는 하루에 최대 50번의 장례를 치렀다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30년 전쟁 경험은 동시대 찬송가 작사가들에게 그려졌듯이 린카르트 목사의 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만든 이 찬송 가사를 가지고 독일의 작곡가인 요한 크뢰거(1598-1662)가 작곡한 "Nun danket" 선율을 거기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Tisch-Gebetein" ("작은 식탁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 이는 원래 식사 전 감사기도로 부르기 위한 곡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토록 많은 고통과 굶주림,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어떻게 식탁에 가족을 모아 앉혀놓고 남은 몇 개의 빵조각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쓸 수 있었을까?

린카르트 목사의 이 감사의 고백은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에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 진리임을 확신한 그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린카르트 목사는 자신의 탄생부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그 감사는 송영(Doxology)과 매우 유사한 기쁨에 찬 찬양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2025년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은 그 어느 때에 견줄 수 없을 만큼 편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지며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는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과 그로 인한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린카르트 목사님이 쓴 찬송을 통해 우리를 교훈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앵커(Anchor)는 바로 “은혜 “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는 복된 감사의 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롬 !

해마다 감사절이면 가장 즐겨 부르는 하나님의 찬송은 “다 감사드리세 (Now Thanks We All Our God)”입니다. 이 찬송은 감사절에 드리는 대표적인 찬양입니다. 위엄 있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 안정된 템포를 가지고 “다 감사드리세 온 맘을 주께 바쳐 주님께 감사합니다.” 목청껏 소리높여 외칩니다. 그러고는 예배가 끝난 후 크랜베리 소스를 곁들인 칠면조 요리가 담긴 잔치를 열어 모든 교인이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 찬송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연상

강태광 칼럼

Back to the Basic!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치셨듯이 병자를 고쳤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셨듯이 사도행전 교회도 가난한 자를 돌보았다. 사도행전 교회는 지상에 남은 예수님의 봄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모범적 교회다.

교회 속성 중 현대교회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사도성(Apostolicity)이다.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공동체임을 천명한다. 현대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한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망각한다.

현대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섬긴 공동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님 마음을 품은 교회요, 예수님 능력을 갖춘 교회다. 이런 사도행전 교회가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할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셨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나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충만했다. 예수님 정신,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도행전 교회를 배워야 한다. 교회가 예수님 능력도 사모해야 하지만 예수님 마음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

7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한국에 머물며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볼 수 있었다. 10명 이하의 성도가 출석하는 초소형 교회도 많았

다.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현대교회는 세상에서 무기력하기 짜이 없다. 교회가 썩은 세상을 치유하기는커녕 세상보다 더 썩었다는 비난을 받는다. 짧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전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 주보에도 전도를 언급하는 교회가 희귀하다. 전도가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진 듯하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미군 역사상 가장 초라한 패배는 월남전이다. 미군이 막대한 인명과 재산을 잃고 월맹에게 무참히 패했다. 그때 미군은 “기초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라고 외치며 재건을 도모했다. 처절하게 기본을 다졌다. 다시 제식훈련을 했고, 다시 사격술을 훈련했다. 이렇게 미군은 재건되었다.

23일 종영한 스포츠 예능 <신임감독 김연경>에서 기본의 중요성을 배운다. 갖가지 사연을 가진 선수들이 절박하게 재기를 꿈꾼다. 절박한 그들은 기본기를 다진다. 모든 선수가 서버 받는 연습을 하고, 세터는 숙소에서도 토스를 연습하고, 리베로는 천개의 수비 연습을 했다. 그들은 눈부신 성장과 변화로 멋진 승리를 쟁취했다. 눈부신 그들의 승리에 박수를 보낸다.

급히 쇠락하는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교회에 절박함이 필요하다. 예수님 승천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던 제자들의 절박한 기도를

배우기를 바란다. 간절히 기도했던 제자들은 성령충만으로 예수충만, 복음충만을 누렸다.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사모한다. 우리도 외치자! Back to the Basic! 그리고 기초를 다시 다지자!

교회 단신

▶ 남가주 사랑의교회 연말 새벽기도회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연말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는 12월 1일(월)부터 13일(토)까지 개최한다.

▶ 동부사랑의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

동부사랑의교회가 12월 1일~5일까지 새벽 5시에 새벽 부흥회를 연다. 우영화 목사, 김기섭 목사, 이요셉 목사, 박현식 목사, Jason Lee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 그레이스미션대학 12/1 정신 건강 세미나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오는 12월 1일(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더블 트리 힐튼 부에나 파크(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에서 ‘영적 돌봄을 통한 정신 건강 회복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김상일 교수(GMU, Ph. D. Boston University)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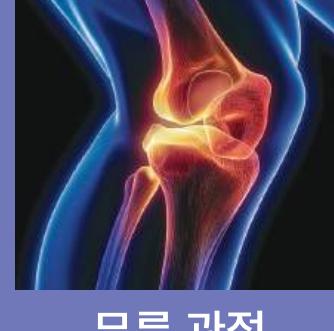
JOINT and JOINT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관절 통증과 연골 손상엔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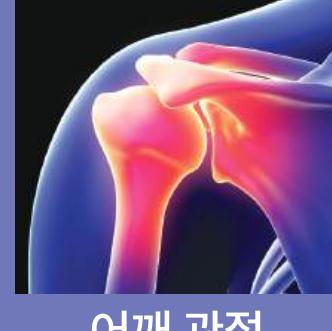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
"당신의 관절을
다시, 편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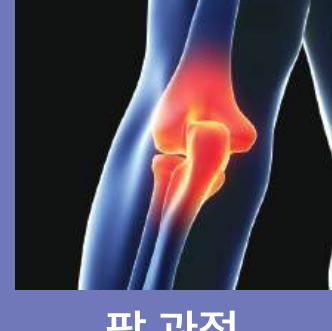
귀생당 JOINT & JOINT는 연골과 관절의 핵심 성분인
천연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을
주요 성분으로 관절과 연골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팔 관절



귀생당 JOINT & JOINT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인
보스웰리아, 터메릭, MSM의 천연 화합물을 염선하여 재 구성함으로
관절, 연골 손상 예방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완화해서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JOINT & JOINT의 효능과 효과

- 관절 연골과 기능 개선
- 혈액이 연골 내로 흡수되어 충격완화 기능에 도움
-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반응을 억제
- 항산화, 항염증 작용으로 염증억제, 통증 완화
- 콜라겐 생성을 개선하여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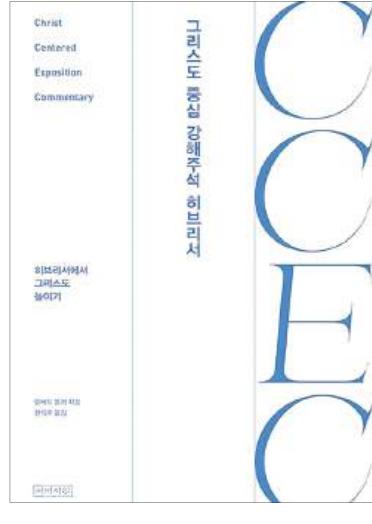


213.384.3333

www.kiseidousa.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히브리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CCEC 그리스도 중심 강해주석 히브리서

앨버트 몰러 | 전의우 역
아바서원 | 416쪽
25,000원모든 설교자에게,
설교는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일 것이다CCEC 시리즈는
설교자들이 설교라는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지도책과 같다저자 앨버트 몰러는
히브리서를 구약의 예언과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며,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속의 의미를 제시한다독자들이 구속사의 흐름과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돋는다

설교자에게 주석은 필수 참고서다. 설교를 구성하고 작성할 때, 본문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묵상과 올바른 성경 해석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리고 나서 주석은 본문을 훨씬 더 오래 연구해 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래서 누구도 초보자나 실력이 입증되지 않은 자에게 주석을 써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개인이 스스로 써낼 수는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참고하는 이유는 같은 본문을 더 오래 더 깊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한 이들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어떤 주석은 너무 많은 주제 정보를 담고 있다.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설교자가 매끄러운 설교문을 작성할 때, 장황한 정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어떤 주석은 저자 특유의 구성이 독특해 본문에 관한 큰 주제만 말해주고 문맥 안에서 본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준다. 설교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추구하는데, 그 이유는 청중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본문에 담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아바서원에서 이번에 출간된 'CCEC 그리스도 중심 강해주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설교자에게 유익한 주석 시리즈다. 시리즈 서문에서 편집자 데이비드 플랫, 대니얼 애킨, 토니 메리다가 직접 설명한 이 주석 시리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정확한 주석을 지향한다. 한 절 한 절 풀어내지는 않지만, 본문을 세밀하게 다루고 바르게 설명한다. ② 목회자들을 염두에 둔다. 부모, 교사, 소그룹 리더, 학생 사역자에게도 유익하겠지만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목회자가 매주 성경에 충실히 설교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석이다. ③ 유용한 예화와 신학의 적용을 갖춘다. 교회를 위한, 목회를 위한 실질적 교재가 된다. ④ 그리스도를 높인다. 성경 본문의 역

사적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연결 고리를 찾아 가르친다 (15-16쪽).

이 시리즈 첫 번째 책으로 국내 출간된 성경은 히브리서이고, 저자는 미국 신학자이자 남침례신학교 총장이었던 앨버트 몰러이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로 손꼽히는 그는 여러 저서로 국내 이미 소개됐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가 쓴 주석이 나왔지만, 주석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학자이자 목회자다.

<그리스도 중심 강해 주석: 히브리서>는 총 32장으로 구성돼 있고 히브리서 본문 전체를 다룬다. 1장에서 히브리서 1장 1-3절을 주제하면서 저자 몰러는 히브리서 제목과 원 청중, 저작 연대, 저자에 관한 간략하지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장은 집중적으로 디를 본문 전체와 핵심 개념, 개요, 그리고 개요에 따른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엔 묵상과 토론을 위한 질문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교리적이면서도 실천적 질문을 풍성히 나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설명은 장황하지 않고 담백하다. 쓸데 없는 이론들을 설명하지도 않고, 본문 자체를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단순히 정보



▲알버트 몰러 총장.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단과 거짓 가르침에 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의 시험 중에 있던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논증을 사용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애 하려 많은 격려, 경쾌, 권면을 시도한다. 설교자가 히브리서를 선택하는 이유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면서 오늘날 성도도 배교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히브리서에 담긴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달하려면 좋은 주석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대부분 주석을 선택할 때 주제 정보가 풍부한 주석을 필참하려 하지만, 800-1,000 페이지 가까이 되는 주석을 매번 참고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정보가 풍부하고 유익하면서도 목회적 관점은 가지고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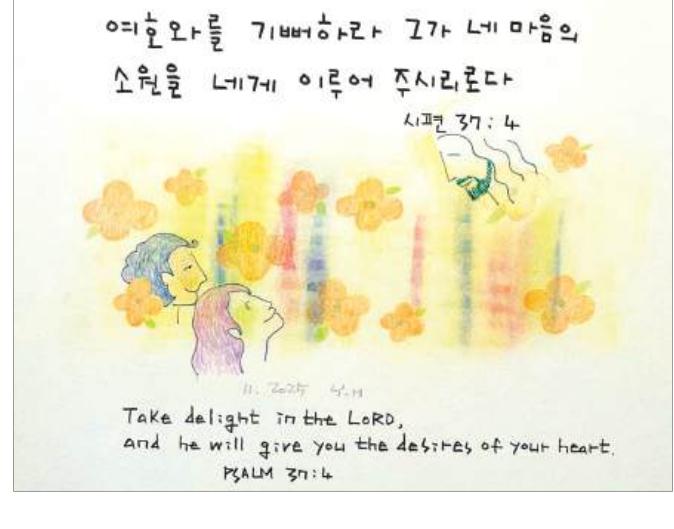
스도 중심적 설교를 이끄는 주석이 있다면, 설교자가 자주 찾고 애용할 주석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중심 강해 주석은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바서원은 '맥아더 신약주석 시리즈'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와 함께, '그리스도 중심 강해 주석 시리즈'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두 시리즈 모두 향후 많은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과 은혜를 끼칠 것이라 믿는다. 이 귀한 프로젝트가 완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한국인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퉁크 셜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기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울타리에 둘러싸인 일출의 들판>(1889)

빈센트 반 고흐와 환란 중에 임하시는 창조주의 ‘부성적 은총’

창조신학적 면모 감지함 통해
창조주의 선하심 생각하게 해
고흐, 해 바라보며 인생과 역사
주관하시는 창조주 전능 묵상
환란 왔을 때 다른 이들과 달라
비추는 태양 통해 우리 붙드심

한때 부친을 따라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던 반 고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병마가 찾아왔다. 이 때문에 그는 졸지에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어 버렸으며, 결국 자신의 반 타의 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반 고흐는 생 레미 근처 생풀 드 모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자주 신경발작을 일으켰고, 그러자 그는 증세를 벼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닫고자 깊이 파고들다 보면 누구든 발작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들 알게 될 거라고 믿어. 너와 나는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적어도 두려움이나 공포 따위로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는 일 따위는 생기지 않을 거야(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1889. 5. 25.)”

생풀 병원에 있을 때 반 고흐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주제를 다룬 <피에타>, <선한 사마리아인>, <나사로의 부활>을 제작했다. 앞의 두 점은 들락루아, 다른 한 점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각각 모사한 것이다. 종교적 주제를 다룬 작품과 다르게, 일상적 풍경 속에 그의 소망을 담은 작품도 엿볼 수 있다.

<울타리에 둘러싸인 일출의 들판>(1889)은 그의 창조신학적 면모를 감지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유화는 병원 주위 밀밭을 그린 것인데, 중경에 울타리가 보이고 그 뒤쪽으로는 저편의 산에서 솟아오르는 일출의 태양을 목격할 수 있다.

구도 상으로 보면 르네상스 이후 탄생한 고전적인 소실 원근법에다 알 수 없는 공간

의 깊이를 자아내는 암시적 터널효과의 결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Rainet Metzger, Ingo Walther, Van Gogh, Taschen, 1998, 203쪽).

초록색 들판에 산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평범한 시골 풍경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화면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일출 시 태양의 광경이다. 태양이 떠오르자, 빛 무리가 사방에 빠르게 퍼지며 지상을 비춘다.

“또 하나의 그림은 어린 밀밭의 아침을 표현한 것이야- 멀리 보이는 몇 개의 선, 밭고랑이 화면 위쪽을 달리고, 벽과 라일락 색 언덕으로 향하고 있어. 밭은 보라색과 황록색, 흰 태양은 노란색의 거대한 빛 무리에 둘러싸여 있어(테오에게 보낸 편지, 1889. 1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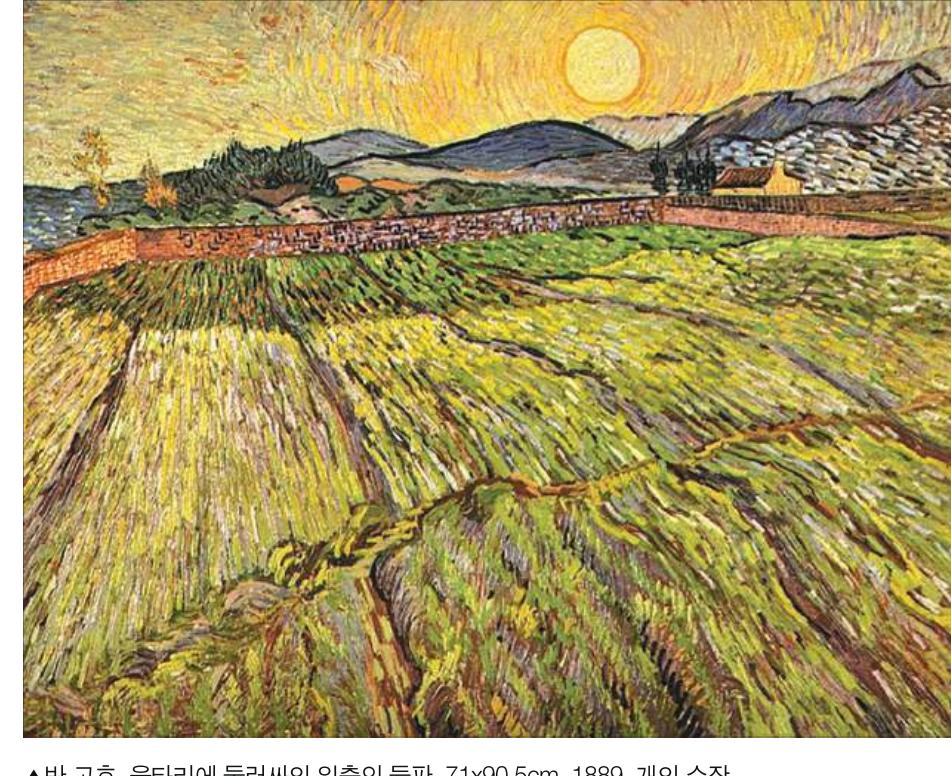
이 유화는 같은 기간 제작한 <생풀 병원의 정원>과 비교된다. 병원 주변을 소재로 한 것인데, 화면 전면에 가지가 잘려나간 나무가 눈에 띈다.

편지에 따르면, 이 나무는 번개에 맞아 쓰러진 것을 정원사가 텁으로 베어낸 것이다. 그 나무는 산책길 옆에 편 풍성한 장미꽃과 대조를 이룬다.

큰 부상을 입은 나무와 천진난만하게 피어난 장미꽃에서, 우리는 엇갈린 존재의 양상을 접하게 된다. 반 고흐 역시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베인 나무를 보고 자신처럼 고통 받는 사람들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다시 <울타리에 둘러싸인 일출의 들판>으로 돌아오면, 이 작품은 빛의 조명 하에 놓인 세상을 연상시킨다. 필립 코닝크(Philip Konink)가 웅장한 창공 아래 사는 마을의 거주민을 통해 신의 은총을 암시한 것같이, 반 고흐의 <울타리에 둘러싸인 일출의 들판>은 지상의 모든 것을 비추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의 선하심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하늘을 물들이는 노랑색을 대지에 흘려놓은 것은 태양의 은총이 대지를 온통 적시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 고흐가 요양원에서 ‘매우 아름다운 시’



▲반 고흐, 울타리에 둘러싸인 일출의 들판, 71x90.5cm, 1889, 개인 소장.

라고 표현한 휘트먼의 <콜럼버스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클리프 에드워즈(Cliff Edwards)는 말년에 이른 콜럼버스의 투쟁과 회의와 성취들을 기술한 이 시가 요양원에서 병마와 싸우는 고흐와 비슷하다고 했다.

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갑자기 내 앞에 보이는 이것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 마치 기적처럼, 어떤 거룩한 손길이 내 눈을 열어 놓았네 / 어슴푸레한 거대한 형체가 바람과 하늘 속에서 미소짓네(Cliff Edwards, The Shoes of Van Gogh, 최문희 역, 『하나님의 구두』, 솔 출판사, 2004, 110쪽)”.

반 고흐는 하늘을 내다보면서 휘트먼의 시처럼 무한함의 현존과 같은 낭만적 경험을 했을 것이다. 물론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네덜란드 미술가들에게 ‘하늘’은 창조주의 전능과 섭리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양육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인식이 그들의 의식 차별에 갈려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하늘을 창조주를 바라보는 계시 요 메타포로서 기능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그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일생을 보심이여(시 33:13)”라는 통찰이 그의 예술 기저에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에는 자연의 질서뿐 아니라 그 분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하나에 대한 돌보심도 포함된다.

태양의 이미지를 기용한 것을 두고 그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태양을 숭배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태양은 이전부터 기독교에 있어 중요한 상징이었다. 성경에서 해는 일반적으로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비유되었다(『IVP 성경사전』, IVP, 1992, 541쪽). 오실 메시아를 ‘공의로운 해(말 4:2)’로 비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록은 그를 태

양 숭배자로 몰아가는 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논리인지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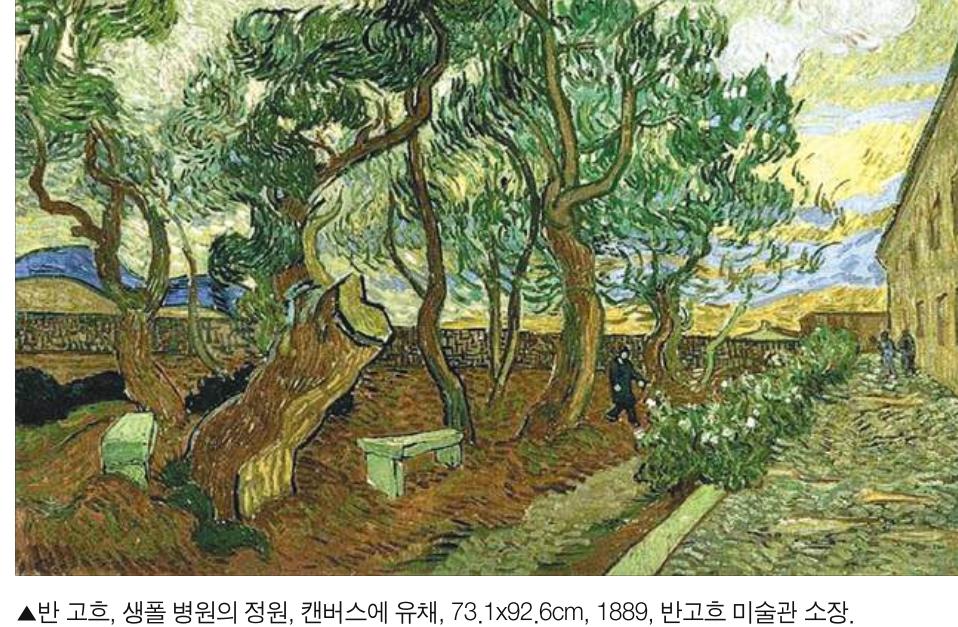
태양에 대한 장 칼뱅의 기술은 여기에 신뢰성을 보탠다. “태양의 힘보다 더 놀랍고 더 빛나는 힘을 가진 피조물은 없다. 태양은 그 빛으로 온 지구를 비출 뿐만 아니라 그 옆로 모든 생물을 기르며 소생시키니 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광선으로는 땅에 풍요함을 불어넣지 않은가(『기독교 강요』 I, 16, 2)?”

고흐는 태양 자체를 세계의 근원 원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은유로 사용되었다. 은유는 특히 인간의 머리로는 쉽게 담을 수 없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요긴하다.

그 분은 초목과 식물의 씨앗을 따뜻하게 하고 쪄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따듯한 온기를 공급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쉬임없이 공급되는 빛의 온기 덕분에 우리도 존재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태양이 출몰하는 것은 자연의 맹목적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성적 은총(fatherly favor)’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기독교 강요』 I, 16, 2).

생풀 병원에서 반 고흐의 삶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는 낙담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태양을 바라보며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묵상하였다. 그분이 영망진창이 된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주실 것임을…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차이점은 환란에 처했을 때 뚜렷해진다. “사방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John Calvin, Heart Aflame, P&P Publishing Company, 1999, 42쪽).” 태양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을 비춤을 통해 우리를 불들고 계심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서성록 명예교수



▲반 고흐, 생풀 병원의 정원, 캔버스에 유채, 73.1x92.6cm, 1889, 반고흐 미술관 소장.

I N V I T A T I O N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갓스월 연합교회가 또 한 번 귀한 전환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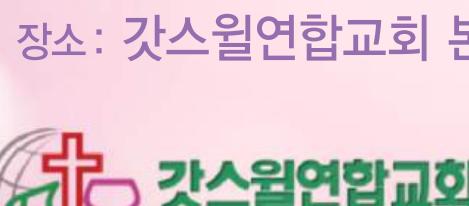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희철 원로목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기념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될 강현규 담임목사님을 취임하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셔서 축복과 격려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God's Will Alliance Church 드림



일시: 2025년 11월 30일(주일) 오후3:30
장소: 갓스월연합교회 본당

원로목사 이희철

Emeritus Pastor Peter Hee chul Lee

담임목사 강현규

Senior Pastor Joseph H. Kang

“조나단 에드워즈의 죽음, 순교적 죽음으로 재해석돼야”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 저자 신춘식 교수 인터뷰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이끈 신학자이자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를 ‘선교사’라는 독창적 시각으로 재조명한 책이 나왔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 역사를 보는 두 렌즈 이론』의 저자 신춘식 교수(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선교학과 박사원)는 책에서 ‘두 렌즈 이론(Two-Lens Theory)’을 제안하여,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과 선교학적 관점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다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는 새 틀을 제공한다.

전체 536쪽 분량의 이 책은 경건과 실천, 부흥과 목회와 선교에 대한 통찰을 아우르는 ‘통전적 선교신학’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저자는 책에서 에드워즈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었다며, 그의 죽음을 순교적 죽음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그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가정 중심의 신앙은 청소년들에게 큰 귀감을 준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

Q.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한다면.

A. 저는 종신대 일반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하며 신학석사(Th.M) 과정에서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의 부흥운동에 대해 연구했다. 그



신춘식 교수.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불을 지핀 리더였고, ‘현대 선교의 할아버지’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다고 말한다.

선교와 선교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을 갖게 되었다. 이 책은 제가 인도 선교지로 떠날 때에도 늘 곁에 두고 읽었으며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던 책이다.

인도에서 약 8년 동안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면서 조나단 에드

로 보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나단 에드워즈를 선교사적 관점에서 그의 삶과 사역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때에 인도의 선교사 추방정책으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15년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

서 안식년 겸 박사과정으로 선교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 신학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학문적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1965년 풀러 선교대학원의 설립과 함께 ‘선교학(Missionology)’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개념이 등장하였고, 풀러에서 저는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 찰스 크래프트(Charles Kraft), 폴 피어슨(Paul Pierson), 벤 엔젠(Ben Engen), 랄프 윈터(Ralph Winter) 등 대표적인 선교학자들의 선교적 통찰을 접하게 되었다. 이들의 선교적 통찰을 바탕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주로 목회자, 신학자, 철학자, 부흥운동가로 조명되어 온 그를 이제는 ‘선교학적 렌즈(Missiological Lens)’로

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다 입체적이고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주의 신학’과 ‘선교학’이라는 두 관점, 곧 ‘두 렌즈 이론(Two-Lens Theory)’을 통해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에드워즈의 삶과 사상을 분석한 것이다.

Q. 선교사 리더로서의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A. 조나단 에드워즈는 ‘선교정보 확산 이론(Information Distribution Theory)’을 실제로 실천한 인물이다. 폴 피어슨 박사의 『기독교 선교 운동사』에 따르면, 선교운동을 설명하는 아홉 가지 이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선교 정보 확산 이론’이다.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의 삶과 일기를 출판함으로 이 이론을 대표적으로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 1718-1747)는 폐결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1747년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에 머물렀다. 그는 생전에 쓴 일기와 생애를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남겼고, 에드워즈는 2년 후인 1749년에 이를 편집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로 출간했다. 이 책은 영국과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새

롭게 불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브레이너드는 24세에 선교사로 나가 29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순결한 헌신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조지 마즈던(George M. Marsden)은 이 일기를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보여주는 영적 자서전”이라고 평가했으며,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헨리 마틴(Henry Martyn), 아도니암 저드슨(Adoniram Judson)과 같은 19세기 선교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스코틀랜드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 합주회’를 조직하여, 정해진 날짜에 함께 기도하는 연합기도운동을 펼쳤다. 그는 “기도가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은 선교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기도 → 부흥 → 선교라는 연결고리를 확신하며, 실제로 많은 선교적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단지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불을 지핀 리더였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 윌리엄 캐리를 꼽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현대 선교의 할아버지’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다.

Q. 책에서 강조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A. 이 책은 지금까지 조나단 에드워즈를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에서만 조명한 한계를 벗어나, 선교학적 시각을 더한 새로운 해석 두 렌즈 이론(Two Lens Theory)을 시도한 것이다.

조지 마즈던의 『조나단 에드워즈 평전(Jonathan Edwards: A Life)』은 지금까지 출간된 에드워즈 연구 중 최고의 저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제 연구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저는 조지 마즈던의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에 더해, 선교학자들의 시각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조나단 에드워즈를 복음주의 신학과 선교학이라는 두 렌즈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에드워즈의 삶과 사역을 보다 입체적이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네스 라투렛(Kenneth Scott Latourette)은 기독교 역사를 선교 확장의 역사로,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문명 운동의 역사로, 폴 피어슨(Paul E. Pierson)은

토마스 맹 기자 (다음호에 계속)

복음주의 신학 + 선교신학, 두 렌즈 통해 에드워즈 해석

다양한 선교학적 프레임을 적용해 균형 있게 분석

약자에 편 사역,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

하나님 중심 세계관, 청년들의 복음적 나침판

에드워즈의 죽음은 인류를 향한 사랑의 실천

랄프 윈터 박사도 선교 개념을 확장시킨 인물로 평가

연구를 통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과 사역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특히 그가 편집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읽으면서,

워즈가 단순히 부흥운동의 주역과 사역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특히 그가 편집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1750-1757년)을 스톡브리지(Stockbridge)에서 인디언 선교사

CUCKOO www.Cuckoorental.com
213-663-9899

▪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쿠쿠밥솥, 정수기, 공기청정기렌탈, 구매, AVS상담, 환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문선영의 머니토크

은행 CD 지금 나와서 복리 어뉴이티로 들어가세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은행에 CD를 끝나면 묶고 하면서 계속 30만불을 가지고 있는데 을 해 들어간 4.2% 받는 CD는 올 11월 말에 만기가 됩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4% 이자는 주지 못하면서 3.5% 이자가 맥시멈으로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 은행장님이 직접 문선영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하셔서 유투브 먼저 봤습니다. 문선영 선생님의 그 많은 유투브 내용 중에 어뉴이티 비디오만 9개를 보면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아주 공부 잘 했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라 돈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식 같은 것은 제 성향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항상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은행만 이용해 오던 중 어뉴이티에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그렇게 어뉴이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일단 없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은 어뉴이티 하면 무조건 손해 본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어뉴이티가 해당이 될까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듣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다만 어뉴이티와 비교해서 아닙니다. 은행을 이용해 오시면서 올 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좋

을 듯 싶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왜 주변에 어뉴이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없다는 점에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CD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고 일하시다 보면 목돈을 모으는게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목돈을 끌어서 CD나 어뉴이티에 끌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게 그리 역사가 길지 않습니

다. 베이비 부모, 이민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직장의 퇴직금, 비즈니스 처분하신 돈, 집 파신 돈을 가지고 나오는게 이제 막 시기 가 된 거죠.

따라서 그나마 익숙한 은행의 CD는 경험을 해보셨어도 목돈이 들어가는 어뉴이티는 그만큼 이용한 역사가 길지 않아서입니다. 반면 요즘 들어 어뉴이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이유는 이제 한인 세대들께서 이제 목돈

을 가지고 나오는 시기가 되었다.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뉴이티를 활용할 만한 시기 된 거죠.

둘째 어뉴이티를 가입하면 손해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어뉴이티인지와 어뉴이티 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셨는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뉴이티와 CD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은행 CD와는 달리 어뉴이티는 오르고 내리는 변동이자 고르실 수 있습니다. 손님들 중 본인이 변동이자를 선택한 줄 모르고 선택하셔서 손님의 돈이 풀려스 이자로 오르기도 했지만 마이너스 이자로 받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 어뉴이티에서 손해를 보셨을 거고, 혹은 너무 안전하지만 적은 이자 겨우 2% 정도 낸 평균 이자로 이 어뉴이티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겠죠.

을 가지고 나오는 시기인 4.2%는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뉴이티를 활용할 만한 시기 된 거죠. 어뉴이티를 활용할 때는 손해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어뉴이티인지와 어뉴이티 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셨는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뉴이티는 고정이자나, 주식시장의 변동이자 뿐 아니라,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내 돈을 지켜주는 마이너스 이자와 없는 그런 지수성 인덱스드 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는 거죠. 이런 지수성 인덱스드 이자와 선택하시면 어뉴이티로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게 되죠.

셋째, 과연 어뉴이티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질문에는 이자로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3.5% 이자를 받는 CD의 “단리이자”는 앞으로 7개 월, 10개월 후면 계약이 끝날 거고 택스를 내고 찾으셔야 할 겁니다. 반면 당장 10개월 후 쓸 돈이 아니라 싶으시면, 어뉴이티의 절대 손실 없는 지수성 인덱스드 어뉴이티로 7년 혹은 10년 동안 전체 내 돈에서 10%씩 매년 찾아 쓸 수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www.wisecalifornia.com

문선영의 머니토크

문선영의 머니토크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미주 최초 시니어 미팅 이벤트
50대 60대 70대 젊은 청춘

로맨스그레이 효도미팅!

젊음을 찾아드립니다!



50세 이상
싱글 시니어
ONLY



한국 최고의 결혼정보그룹 '선우' 와 미주조선일보가 함께합니다.

- ▶ 일시: 12월 21일 (일) 오후 2시부터(약 3시간)
- ▶ 장소: 옥스포드팔래스 호텔(2층 다이너스티홀)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 ▶ 대상: 50세 이상 싱글 남녀
- ▶ 참가 인원: 남녀 각 50명(총 100명)
- ▶ 참가비: \$150
- ▶ 참가문의: (213)435-1113 | (주)선우

경/풀/추/첨
한국 왕복 항공권
1매를 드립니다.
한국 ↔ 미국

당일 5~6명의 시니어 이성 만남이 이루어지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우 결혼정보 업체에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에만 추가 비용이 발생 됩니다.

주최 Since 1991 SUNOO
Couple.net | (주)선우

후원 A&E
크리스천파운데이션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